

# 취업전선 ‘빨간불’

## 문과계열, 여학생 취업대책 절실 인성교육, 취업특강 강화로 대응

경기불황으로 인해 전체적인 취업난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학교도 전반적으로 낮은 취업률을 보이고 있다.

취업정보실이 조사한 97년 2월 졸업자 취업률 및 취업 현황조사에 따르면 서울 캠퍼스는 80.2% 수원 캠퍼스는 61.6%의 취업률을 기록했다.

서울 캠퍼스의 경우 한의, 의약계열과 경영대학은 예년과 변함없는 100%의 높은 취업률을 보였지만 문리대학과 가정대학은 69.9%와 52%의 저조한 양상을 나타냈다.

과별 취업 실태를 살펴보면 100%의 취업률을 보인 과는 생물학과 수학과 영어교육 의학과 간호학과 한의학과 약학과이고 90%이상의 취업률을 보인 학과는 생물학과(야간), 치의학과 무역학과 경영학과

회계학과 물리학과 법학과이다. 이와 반대로 지리학과 미술교육학과 아동주거학과 식품영양학과 작곡과 성악과는 50%의 낮은 취업률을 보여 대조를 이루었다.

수원 캠퍼스의 경우 가장 높은 취업률을 보인 단대는 공대로 73.9%, 가장 낮은 취업률을 보인 단대는 자연대로 41.4%를 나타냈다.

학과 별로는 전과공학과(100%)와 태권도학과(96.2%), 섬유학과(94.6%)가 90% 이상의 높은 취업률을 보인 반면 환경학과 도예과, 유전공학과는 50%도 못미치는 저조한 취업률을 보여 극심한 학과간 편차를 드러냈다.

이에 취업정보실장 최범석(화학)교수는 “자연대에 경우 자격증 취득을 준비하는 졸업

생들을 비 취업자로 구분해 저조한 취업률을 나타냈다”고 대변한 후 “취업실태조사를 서두른 관계로 정확한 자료를 얻지 못했다. 차후 정확한 취업률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분석 결과 문과 계열과 여학생이 많은 과일수록 낮은 취업률을 보여 이들에 대한 취업대책이 절실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작년에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남학생들이 복학후 바로 취업준비에 들어가는 데 반해 공백이 없는 여학생들은 4학년때 집중적으로 취업준비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 여학생들이 취업에 대해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양캠퍼스 취업정보실은 재학생에 대한 인성교

육 및 진로 특강을 개최하고 모의 면접과 취업특강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취재부)

### 산정원 신입생 모집

#### 최고경영자 과정 선발

산업정보대학원(산정원, 원장:이재택 교수)은 97학년도 후기 신입생을 모집한다.

석사과정 전형은 18개 학과(지역개발행정, 경영정보, 무역정보, 회계, 중소기업, 세무, 기계공, 전자공, 전자계산, 정보통신, 제어계측, 산업공, 화학공, 자동차공, 전파방송, 식품가공, 산업디자인, 스포츠외교)를 대상으로 서류전형과 구술시험으로 치러지며 지원가능 대상자는 4년제 대학졸업자 및 97년

8월 졸업예정자, 교육부 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의 졸업자이다.

원서교부와 접수는 오는 6월 2일부터 11일까지 산정원 교학부에서 하며 원서대와 전형료는 각각 3천원과 4만원이다.

한편 우리학교 동문이나 군인, 공무원은 전 이수기간을 통해 수업료의 20%가 장학금으로 주어진다.

또한 최고경영자 과정은 고급공무원과 공·사기업체 경영자 및 임원, 개인사업자, 사회단체의 간부 등을 대상으로 모집하며 서류전형과 면접을 통해 선발한다.

원서교부와 접수는 오는 6월 9일부터 25일까지 산정원 교학부에서 실시하고 원서대는 무료, 전형료는 4만원이다.

### 스쿨버스 10대 교체 강남노선 운행

수원캠퍼스 총무과는 스쿨버스 10대를 구입, 지난 1일부터 운행을 시작했다.

이번에 구입한 차량은 아침과 저녁에는 교직원 출퇴근용으로 그 외 시간에는 강남노선으로 운행할 예정이다.

이에 총무과 한 관계자는 “90년도에 구입했던 차량 9대를 매각 또는 폐차 할 것이며 98년까지는 모든 노후 차량을 교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인제 지사 특강

‘이인제 경기도지사 특강’이 오는 7일 오후 6시 서울캠퍼스 중앙도서관 시청각실에서 개최된다.

‘국가경제와 지도자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실시하는 이번 강연은 경영대학원 총학생회가 주최하며 약 2시간 동안 열린다.

### 대학주보 뉴스서비스

천안: GO KHU 31

하이텍: GO KHU 10

유니텍: GO KHU

인터넷:

<http://news.khunghee.ac.kr>

## 조기졸업, 부전공 신청

학적과는 오는 12일부터 23일까지 조기졸업 및 부전공 신청을 받는다.

조기졸업대상자는 97년도 1학기까지 1백40학점 이상 취득한 자 중 2학년 2학기까지 평균학점 4.0이상인 자와 3학년 이후 평균학점 3.75이상인 자

이며 학적과에 비치된 소정의 양식을 작성, 제출하면 된다.

부전공 신청은 97년도 1학기까지 타 전공과목(전공교양 제외) 21학점 이상 이수한 자 중 1학년 평균학점이 2.5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한다.



**무리한 ‘봄단장’** 지난달 13일부터 가정대와 호텔 전문대 주변에서 진행되고 있는 서울 캠퍼스 조경공사. 환경미화 목적 외에 학내 연계성 유지와 토사방지를 위해 시작됐다고 하지만 외관에 너무 신경 쓰는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최수정 기자)

## 전임·학기제 교원 모집

### 총 15개 학부에 충원 예정

97학년도 2학기 전임교원 및 학기제 교원을 오는 6월 5일 정오까지 모집한다.

해당 전공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 교수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에 한해 실시하는 이번 모집으로 전임교원이 충원될 학부 및 학과는 서울캠퍼스 법학부, 경제통상학부, 미술교육과, 의학과, 한의학과, 약학과와 수원캠퍼스 사회과학부, 자연과학부, 생명자원과학부, 언어교

육연구원이다. 또 비전임교원인 학기제 교원이 충원될 학과는 서울캠퍼스 지리학과, 경영학부와 수원캠퍼스 영어영문학과, 자연과학부, 제1공학부 등이다.

이번 모집 응모 희망자는 국문이력서, 졸업 및 성적 증명서, 최종학위 증명서, 경력 및 재직증명서, 추천서, 연구실적 목록, 93년 9월 이후 발표된 연구실적 및 학위논문, 2년간

연구계획서 각 1부를 해당캠퍼스 교무과에 제출하면 된다.

### ‘경희체조’ 개발

체조대는 ‘경희체조’를 독자적으로 개발, 보급하고 있다.

경희체육의 발전과 경희 구성원의 일체감을 조성할 목적으로 개발된 이 체조는 5회에 걸친 시사회를 통해 검증과정을 마치고 지난 1일 체과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1차 보급을 실시했다.

체과대는 일반학생들에게 교양체육시간을 통해 이 체조를 보급할 예정이며 교직원을 위한 실체체조도 구상, 작업중이다.

## 교시 탐

## 주춧돌 바로세우기

▼호르듯 부드러운 곡선과 정교한 나무색의 조화가 고풍미를 한껏 풍기는 한옥집을 떠올려 보자. 곡선으로 내려지르는 기와를 따라 내려오면 그 끝은 나무기둥으로 이어지고 그 나무기둥은 바닥을 향해 곧게 서 있다. 아름답지만 언제고 부러져 주저앉을 듯한 구조이다. 그러나 그런 한옥집이 오랜 세월 끄떡없이 제 모양을 지키고 서 있을 수 있었던 이유. 그 이유는 나무기둥과 바닥이 맞물려 있는 부위를 자세히 살펴보면 찾을 수 있다. ‘날뚫힌 나무기둥을 살짝 잡아내린 주춧돌. 그 주춧돌이 바로 그 이유이다.

▼서울캠퍼스는 96학년도 이후 입학생에 대해 C.R.S. 제도를 적용, C.R.S. 인증시험을 통과하지 못할 경우 졸업을 할 수 없게끔 규정해 놓고 있다. C.R.S.란 졸업능력인 증제로도 학교가 지정하는 특정과목에 대해 일정 능력을 요구하고 이를 인증하는 제도를 말하는데 우리학교의 경우 영어와 전산분야를 지정과목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시험을 치를만한 여건이 조성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먼저 영어 시험의

경우 시험내용 중 말하기 과목을 지정하고 있었으나 대화 상대가 될 강사가 부족할 이유로 듣고 쓰는 형식의 시험으로 대체될 예정이다. 또한 전산학은 시험내용 내에 실습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웬시생이 사용할 수 있는 컴퓨터 소강수가 극히 적어 여러 시간대로 분반을 해서 시험을 치뤄야 할 실정이다. 더군다나 해를 거듭할수록 웬시인원은 늘어나게 되므로 시험 기자재 부족문제는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C.R.S.제도는 분명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끌어당겨 사회로 진출시키겠다는 학교측의 의지 표현일 수 있다. 그러나 현 상황처럼 여건 조성이 터무니없이 부족한 상태에서 학생들을 끌어 당긴다면 얼마가지 않아 잠고있는 줄이 끊어질 것은 뻔하다. 주춧돌이 없는 채로 세워진 나무기둥이 지붕의 무게를 버텨내기 힘들어 주저앉고 마는 것처럼 말이다. 따라서 학교는 해를 거듭해 웬시인원이 증가되기 이전에 시험과목에 합당한 시설 및 여건의 조속마련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강남이 기자)

## 이건수 동문 10억 기증

### 개교 50주년기금 단계적 출연 계획

정외와 출신이자 동아일렉콤 사장인 이건수 동문이 개교 50주년 학교발전기금으로 10억원 을 출연할 것을 밝혔다.

지난 4월 29일 조정원 총장을 비롯 양캠퍼스 교무위원 60여명이 모인 가운데 열린 간담

회에서 이 동문은 “99학년도까지 단계적으로 발전기금을 기증해 현재 학교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교 50주년 기념사업에 동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매년 한번씩 전 교무위원을 초청, 간담회를 열고 있는 이

동문은 지난 94년 2월 모교발전기금으로 3억원을 출연하였 으며 그 이전에도 91년 R.O.T. C.장학금 1억원과 2억원의 장학금을 회사한 바 있다.

### 일본어 변론대회

수원캠퍼스 언어교육연구원(원장:이숙자 교수)은 오는 24일 오전 10시부터 자연대 시청각실에서 ‘제1회 전국 일본어 변론대회’를 개최한다.

고교생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이번 대회의 참가자에게는 5분간의 자유주제 발표시간이 주어지며 최우수상 수상자에게는 교육부 장관상, 1등은 총장상, 2등은 언어교육연구원장상이 각각 수여되고 입상자 전원은 일본연수의 특전을 부여 받는다.

한편 오는 28, 29일에는 YBM시사영어사 후원으로 ‘모의 TOEIC 시험’이 실시된다.

## 경인총련 출범식

### 9일, 10일 성공관대에서

‘제4기 경기인천지역대학총학생회연합(경인총련, 의장:이병연 수원캠퍼스 총학생회장) 출범식’이 오는 9일부터 10일까지 성공관대학교(수원)에서 개최된다.

이번 출범식은 9일 오후 5시 학교 집결을 시작으로 오후 7시 시민과 함께하는 ‘겨레사랑 북녘동포돕기 열린 문화제’, 오후 9시 경인총련출범식으로 진

행된다.

또한 다음날에는 오전 9시 ‘20만이 함께하는 출범식 마당행사’와 오후 2시 ‘김영삼 정권 퇴진을 위한 시민·학생 결의대회’ 및 가두행진도 가질 예정이다.

이번 출범식의 참가회비는 1만원이고 열린문화제 티켓은 3천원에 판매된다.

## 일일 소비자 피해 구제 상담소 개설 <관련기사 4면>

## 절망의 대지 위에 희망의 손길을...

대홍수가 휩쓸고 간 논 위에는 여전히

모래가 쌓여 있습니다.

지금 대기근에 허덕이고 있는 그들은

바로 우리의 형제이자 자매입니다.

우리가 손을 뻗지 않을 때

정말로 참혹한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형제는 우리가 도와야 합니다.

경희학원 겨레사랑 운동본부는

오는 10일과 23, 31일 세차례에 걸쳐

북녘 동포 돕기 모금을 실시합니다.

수요일 한끼 식사값 3,000원으로

북녘 절망의 땅에 희망을 전달합니다.